

'2017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

방송국명 : 여수MBC

1. 회의개최

일 시	장 소	참석인원 수		비 고
		위 원	방송국	
12.28(목)	-	14/14	8/8	

○ 시청자위원 불참자(0명) 명단 : 서면회의

○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: 서면회의(대표이사 심원택, 상무이사 정성채, 경영기술국장 임영택, 미래전략국장 안정희, 순천지사장 전승우, 경영심의부장 이진호, 편성제작부장 김지홍, 보도부장 최우식 (8명))

2.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

가.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(건수)

방송 편성	방송프로그램					자체 심의규정	합계
	보도	교양	연예·오락 (스포츠)	기타	소계		
건 수	-	-	-	1	1	-	1

나. 사업자 반영(건수)

구 분	수 용	의견참고	반 론	합계
건 수	1	-	-	1

다. 의견제시(시정요구)에 대한 조치내용

구 분	의견제시(시정요구)내용	조치내용	제시 월
계	1건	1건	
보도	최근 경주, 포항의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 필로티 구조 등 특히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절실함. 관련 실태를 상세히 보도바람. 여수 소재 모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 상황임. 관련내용을 상세히 취재, 보도바람. (김평득)	웅천지구 부영아파트 전체 부실시공 ‘전수조사’(11/30), 여수시의회, 웅천부영아파트 하자 현장 점검(12/5) 보도. 아파트 시공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마련 등 상황 판단과 대응책 협의내용 보도. <뉴스데스크> <17.11월.12월 조치>	‘17.11월

라.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

요 청 내 용	조 치 내 용	조치일자	비고

마.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

성 명	생년월일	전 · 현직	변동사유	비고

3. 기타사항

가.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

요청자(단체)	공개내용	공개방법

나. 시청자위원 명단

(임기 : 위원별 상이)

구분	성명	전 · 현직	추천단체	추천부문	비고
위원장	심장섭	현)재원산업 회장	(사)여수산단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	경제	‘17.02.01~’19.01.31

구분	성명	전 · 현직	추천단체	추천부문	비고
부위원장	송석근	현)금호석유화학 부사장	여수상공회의소	경제	‘15.10.01~’19.09.30
위원	김평득	현)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	(사)한국장애인문화 전남협회여수지부	사회소외계층	‘13.08.01~’19.07.31
위원	김철희	현)(주)대신기공 대표이사	전남 학생 교육문화회관	청소년	‘15.01.01~’18.12.31
위원	김순기	현)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	광양상공회의소	경제	‘15.02.01~’19.01.31
위원	강성채	현)순천농협조합장	순천승평중 운영위원회	학부모	‘15.04.01~’19.03.31
위원	김형주	현)여수수협조합장	여수수협 어촌계장 협의회	사회소외계층	‘15.10.01~’19.09.30
위원	백인규	현)녹동현대병원장	녹동현대 전문요양원	사회소외계층	‘16.06.01~’18.05.31
위원	정은영	현)청암대학교 교수	순천 YWCA	여성	‘16.06.01~’18.05.31
위원	이두희	현)GS칼텍스 생산지원공장장 (부사장)	여수상공회의소	경제	‘17.02.01~’19.01.31
위원	홍종철	현)LG화학 HR공장장	쌍봉종합 사회복지관	사회소외계층	‘17.02.01~’19.01.31
위원	최영호	현)롯데첨단소재 생산본부장(상무)	여수 장애인 복지관	사회소외계층	‘17.03.20~’19.03.19
위원	김혜선	현)순천대학교 교수	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남지회	소비자	‘17.08.01~’19.07.31
위원	한정윤	현)법률사무소 진남 변호사	순천지방법변호사회	변호사	‘17.08.01~’19.07.31
변 동 사 항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
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

구 분	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	답변내용	비 고		
			수용	참고	반론
보도	<p><기타></p> <p>파업 등으로 인해 지역 시청자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.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파업으로 인한 제작파행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,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고대함.</p> <p>(심장섭)</p>	<p>현업 제작자들의 제작거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. 지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직원들이 현업 복귀와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람.</p>	○		